



한식의 다양성 과학으로 풀다

한식 인문학

권대영 지음

“우리 조상들은 나물을 즐겨 먹었다. 이 사실은 옛 문헌에도 잘 나와 있는데, 불과 여름에는 산과 들에서 다양한 풀을 캐거나 직접 뒷밭에서 재배하여 채소를 먹었으며 말려 저장하였다가 추운 겨울에 묵나물로 요리해 먹기도 하였다. (중략) 우리나라에서 채소를 언제부터 먹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역사에서 나타난 첫 기록은 일연(一然 1206-1289)의 ‘삼국유사(三國遺事)’(편찬연대 미상·국보 제306호)에 나타난 ‘속과 마늘로, 이미 5000여 년 전에 식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본문 중에서)

“오늘은 뭘 먹지?” 직장인들에게 점심 메뉴를 고르는 일은 쉽지 않다. 매일매일 선택의 고민이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뭘 해서 밥상을 차릴까?”라는

고민을 1년 365일 달고 산다.

“무슨 반찬으로 밥을 먹지?” 이 말은 한식의 특성을 가장 명료하게 드러낸 말이다. 서양의 식사가 하나의 음식을 먹는다면, 한식은 하나의 식단, 다시 말해 밥상에서 밥과 반찬을 먹는 문화다.

음식 다양성의 관점에서 한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책이 발견됐다. 한국식품연구원에 재직 중인 권대영 박사가 펴낸 ‘한식 인문학’은 한식을 과학으로 재해석한 대중서다. 오천 년 우리나라 음식 역사의 원형과 기원, 미래까지 아우를 뿐 아니라 저자 특유의 통찰력과 사유가 번뜩인다.

저자는 한식의 역사에 드리워진 오류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둔다. 식품과학자다운 면모가 서사적 맥락과 결부돼 흥미를 끈다.

“음식의 역사와 문화도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고추 전래의 진실만 밝혀도 수많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우리 음식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가장 먼저 고추 역사 이야기를



꺼낸다. 한식에 있어 고추는 ‘마스터 키’나 다름없는데다, 핵심 재료다.

저자는 ‘고추 일본 전래설’에 의문을 품고,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계통수 검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는 ‘폴립버스 고추’는 ‘한국 고추’와 품종부터 달랐다.

고추는 1960만 년 전에 지구상에 있었고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기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세계고추지도도를 보면 모든 대륙에서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또한 고추를 잘 먹고 씨를 배설하는 새들로 인해 고추가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도 했다.

“우리나라 고추는 지역적으로 먼 중남미의 매운 고추보다는 가까운 만주, 중앙아시아, 헝가리 고추와 유전적으로 비슷하다. 우리나라 고추 안에서 매운 비슷한 두 고추가 47만 년 전에 분화되었고, 우리



보리밥·순두부찌개·보리굴비·애호박나물·고추된장무침·머위들깨즙탕·오이소박이. <헬스레터 제공>

고추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중앙아시아 나 헝가리 고추는 우리나라 고추와 50만 년 이전에 갈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자는 한식에는 서양의 오미(五

味)로 구분할 수 없는 맛이 있다고 강조한다. 오미로 한식을 판단하는 것은 산업화 시대의 변질된 맛이라는 얘기다. 한식의 맛은 ‘게미’가 있는 발효의 맛, 염마 손맛 등 기억 속에 자리한 다양한 맛이다. 저자는 시원한 맛을 내는 데는 온도, 염도, 산도, 매운 맛, 짭짤한 맛 등 여러 감각이 작용한다고 본다.

책에는 건강의 관점에서 한식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내용도 있다. 건강한 음식은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인데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음식이 발효식품이고, 바로 한식이라는 논리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다양성, 건강성, 삶의 질적 우수성과 한식이 우리 몸과 연결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세계의 장수 지역에서 발견한 건강 음식의 조건을 분석하면서 점차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인 맞춤형음식’으로의 한식의 우수성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헬스레터>3면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들 뒤에 남겨진 아이들 니콜라 마티외 지음



일반적으로 노벨문학상, 맨부커상, 공쿠르상을 세계 3대문학상이라고 한다. 그

만 큼 문학적 권위가 있다는 얘기다. 2018년 공쿠르상 수상작인 ‘그들 뒤에 남겨진 아이들’이 출간됐다. 저자는 2014년 소설 ‘집승에겐 전쟁편’을 출간해 에르크만-샤트리앙 상을 수상하고 2015년 트랑스픽 주 추리소설 문학상, 미스터리 비평가상을 수상한 니콜라 마티외.

이번 장편소설은 15세 소년이 성인이 되어가며 겪는 이야기다. 프랑스 북부 로렌지방의 작은 가상 도시 에일랑주에서 벌어지는 네 번의 여름을 소설로 형상화했다. 주인공이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군대에 자원입대했다가 의병 제대를 하고, 사회인이 되는 시간과 맞물린다.

소설의 시작은 사춘기 소년 앙토니와 사춘이 동네 호수 저편에 ‘누드 비치’가 있다는 소문에 카누를 훔쳐 타고 가면서 진행된다. 그곳에서 스테파니와 클레망스를 우연히 만난 앙토니는 스테파니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그녀가 자기와는 다른 집안 환경에서 화초처럼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느 날 앙토니와 사춘은 아버지가 아끼는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파티에 참석한다. 그러나 두 소년은 부잣집 아이들의 멸시와 냉대를 받는다. 더욱이 마리아나에 취해 졸도까지 하는데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의 오토바이는 보이지 않는다.

작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복구하고

우리네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나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생생하고 상세한 묘사, 그리고 리얼리티에 최대한 가깝게 정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나의 문체는 리얼리티다”라고 밝혔다. <민음사>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넷플릭스노믹스 유건식 지음



방송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시청자는 더 이상 과거의 방송사가 송출하는 콘텐츠만을 수동적으로 보지 않는다. 원하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선도한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다.

세상의 변화를 잘 빠르게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 기술에 잘 활용해 영화와 텔레비전을 보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넷플릭스를 분석한 책이 나왔다.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초로 KBS 드라마 ‘굿닥터’를 미국 ABC의 2017/2018 시즌으로 리메이크했던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유건식 연구팀장이 펴낸 ‘넷플릭스노믹스’는 넷플릭스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다.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무엇인가. 플랫폼 회사이기도 하고 콘텐츠 구매사이기도 하고 콘텐츠 제작사이기도 하다.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가장 비싼 가격에 구매할 뿐 아니라 넷플릭스와 계약하면 방송사를 통하지 않고도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다. 여기에 추천 시스템, 오리지널 콘텐츠, 저렴한 요금, 글로벌 배급 등을 기반으로 인기를 끄는 데다 전 세계 1억50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최신 정보를 토대로 한국 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국내에서도 넷플릭스의 성장세는 괄목할 만하다. 2016년 한국 진출한 이후 3년 만에 넷플릭스 가입자가 350만 명까지 증가했다.

또한 기존 미디어와는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공존해야 하며 시청자와 제작자를 우선 순위로 놓는 넷플릭스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울>2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코드걸스 리자 먼디 지음·이순호 옮김



태평양 전쟁 개전 초, 미국은 당시 태평양 양의 4분의 1을 장악할 만큼 강한 해군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일본을 상대로 물자 보급선과 수송선을 파괴, 군사 배치와 전술을 미리 알아내며 산호해 해전, 미드웨이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영국이 패튼 장군의 부대가 영국 남동부에 집결한 것처럼 꾸며 나치를 속여 승리를 거머쥔 사건도 있었다. 이밖에도 많은 전쟁의 배후에는 암호 해독자들이 있었으나, 그들 대부분이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싱크탱크 새로운 미국 재단 선임 연구원이자 저널리스트인 리자 먼디가 2차 세계대전 중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약한 여성 암호해독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 ‘코드걸스’를 펴냈다. 저자에 따르면 1940년대 미국에서 ‘암호 해독’ 분야는 막 발을 댄 상태였고, 파란한 일이나 부차적인 일로 치부됐다고 한다. 재능 있는 여성들이 암호해독 적임자로 여겨졌던 배경이다.

오히려 명에 대한 무관심과 중요한 일은 여성의 일이 아니라는 안팎의 선입견이 여성 암호 해독자들의 비밀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됐고, 그들은 끈기와 직관력, 번뜩이는 영감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주축이 됐다.

책은 오랜 시간 사회적·개인적 이유로 투명인간처럼 지냈던 20여명의 여성암호해독자들을 직접 찾아가 들은 경험담을 담았다. 어떤 이는 해독의 속도와 정확도가 전쟁에 영향을 미친다는 압박감 속에서 고통받았고, 어떤 이는 비보를 전해 들었으나 비밀 임무를 맡은 이상 숨죽여 우는 수밖에 없었다. 급박한 전쟁 상황 속 그들이 느꼈던 사랑과 우정, 고통, 활기를 자세한 묘사로 현장감있게 풀어냈다. <갈라파고스>2만7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외로움의 철학 라르스 스벤젠 지음



사회성이 강한 우리 세계에서 ‘외로움’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 쉽게 표출할 수 없는 감정이나, 분명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 중 하나다. 누군가는 일시적 불편함으로 느끼고, 누군가는 고질적인 만큼 빈번하게 느끼며 생의 위기를 맞기도 한다. 우리는 외로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에서 철학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라르스 스벤젠이 외로움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분석한 책 ‘외로움의 철학’을 펴냈다. 철학, 심리학, 사회과학의 최근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외로움의 다양한 종류를 살피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파헤치는 책이다.

저자는 스스로 외로움을 책임져야 한다며 현대 사회가 외로움보다는 지나치게 희박한 고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기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으로써 외로움을 줄일 수 있고, 타인의 인정에 목숨걸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열어놓을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책은 8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심리학, 사회과학에서 끌어온 자료를 통해 외로움의 다양한 유형들을 개괄한다. 2장에서는 다양한 감정들을 논의하며 감정으로서의 외로움을 파헤치며, 3장에서는 사례를 통해 외로움을 촉진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4장과 5장에서는 신뢰, 사랑, 우정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며, 6장에서는 현대 개인주의를 외로움의 주 원인으로 짚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인간이 특히 외로움을 잘 느끼는 동물인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7장과 8장은 고독 속에서 외로움을 감당하는 법, 개인에게 외로움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주장 등으로 채워졌다. <창비>1만5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상가 1층 4거리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매매 - 7억원(대출 2억5천만 포함)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문의. 010-6834-7400

